# 臟腑의 八卦 配屬에 關한 硏究

**백진웅**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A study on the grafting eight trigrams(八卦) and the internal organs(臟腑)

Baek Jin Ung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hung Hee University

Eight trigrams(八卦) is the nucleus or the basic of I - ching(周易) and the internal organs(臟腑) are the main system of the body. Therefore grafting eight trigrams(八卦) and the internal organs(臟腑) theory has a meaning of grafting I - ching(周易) and the main point of the oriental medicine. But the uncertainties of the theories between doctors still exists and there's no unified theories in matching eight trigrams(八卦) and the internal organs(臟腑). This tells us tha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the grafing I - ching(周易) and oriental medicine'(醫易會通) theory is not logically organized. Therefore the author realized the necessity of the study about grafting eight trigrams(八卦) and the internal organs(臟腑) theory.

**key words** : I-ching(周易), Eight trigrams(八卦), The internal organs(臟腑)

## Ⅰ. 序 論

周易의 思想과 範疇[1] 체계를 이용하여 醫學의 이치를 밝히는 醫易會通의 연구 방법은 2,000 여년 이상 傳承된 것으로,[2] 역대의 수많은 名醫들이 醫易會通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론 저술과 임상 실천을 함으로써 韓醫學을 발전시켜 왔다.[3]

1) 範疇 : 1. 일반적으로는 同類의 것이 딸려야 할 部門(部類) 또는 範囲의 뜻
2. (철) (獨 Kategorie) 가장 보편적, 기본적인 궁극 개념 또는 最高類概念.
(신기철 신용철 編著,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94, p 1424)

2) 從晩周時期起 二千余年中 歷代中医學者自覺地援易理以闡医道 利用周易的思維框架 範疇体系以建構与完善中医的基礎理論 形成了医易會通的優良伝統 曾経有效地促進了中医學的發展
(李浚川 蕭漢明 主編, 医易會通精義,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序 p 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최근 들어 『周易與中醫學』[4], 『中國八卦醫學』[5], 『醫易會通精義』[6], 『醫易啓悟』[7] 등 醫易會通의 전모를 상세히 언급한 책들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 수록된 수많은 이론 중에는 八卦思想과 範疇 체계를 이용하여 韓醫學을 해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陰陽五行 思想과 範疇 체계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韓醫學을 周易의 八卦 思想과 範疇 체계로 해석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八卦 思想과 範疇 체계를 이용하여 臟腑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八卦는 易의 핵심이자 기본이고[8] 臟腑는 人體生理活動의 中樞이기 때문이다.[9] 즉 八卦와 臟腑 이론을 접목하는 것은 周易과 韓醫學의 중요 요소를 접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醫家마다 學說이 紛紛하여 아직까지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關한 통일된 이론조차 없는 실정이다.[10] 이는 醫易會通 理論이 중요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에 著者는 八卦와 臟腑 이론 체계의 접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硏究를 시작하였다.

## II. 本 論

### 1.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關한 諸家學說 考察

八卦 思想과 範疇 체계를 이용하여 臟腑의 性質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가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관한 諸家學說을 考察할 필요가 있는데, 八卦와 臟腑의 配屬은 八卦와 五行의 配屬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八卦와 五行의 配屬 이론을 考察하고자 한다.

#### 1) 八卦와 五行의 配屬 理論에 關한 考察

(1) 京房[11]의 八卦와 五行 配屬 理論

중국 西漢의 京房은 그의 納甲法[12]에서 八卦를 五行과 配屬하였는데 ☰(乾)는 金에 配屬하고, ☱(兌)는 金에, ☲(離)는 火에, ☳(震)는 木에, ☴(巽)는 木에, ☵(坎)는 水에, ☶(艮)는 土에, ☷(坤)는 土에 配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乾)는 陽金, ☱(兌)는 陰金, ☲(離)는 火에, ☳(震)는 陽木, ☴(巽)는 陰木, ☶(艮)는 陽土, ☵(坎)는 水에, ☷(坤)는 陰土에 配屬하였다.[13]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張敬善 權寧奎 金南一 譯, 李浚用 編, 医易學思想,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3
4) 楊力 著, 周易与中医學, 서울, 一中社, 1992
5) 劉杰, 袁峻 著, 中國八卦医學, 서울, 青島出版社, 1995
6) 李浚川 蕭漢明 主編, 医易會通精義,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7) 郭東烈 編著, 医易啓悟, 서울, 成輔社, 1997
8) 李正來 著, 医易同源, 서울, 図書出版 東洋學術院, 1993, p 54
9) 김완희 김광중 지음,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一中社, 1996, p 27
10)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合에 關한 硏究, 大韓原典医史學會誌 Vol.12-2, 1999, p 217
11) 중국 西漢의 今文易學인 京氏學의 창시자. 성은 李씨. 자는 君明. 동군돈구(洞郡頓丘 : 하남성 청풍 서남부 지방) 출신. 일찌기 孟喜의 문인인 焦延壽에게서 易을 배워 京氏學의 개창자가 되었다. 저서로는 京氏易伝 3권이 있다.(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239)
12) 漢代 易學의 述語. 八卦와 天干, 五行, 方位를 서로 配屬시켰으므로 이렇게 이름한다.(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89)
13) 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23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 | ☱ | ☲ | ☳ | ☵ | ☶ | ☷ | ☴ |
|---|---|---|---|---|---|---|---|
| 金(陽) | 金(陰) | 火 | 木(陽) | 木(陰) | 水 | 土(陽) | 土(陰) |

도표 1. 京房 納甲法에서의 八卦와 五行의 配屬

그런데 도표 1에 정리되어 있는 京房의 이론은 『周易』「說卦傳」에 근거를 두고 있다.

八卦와 五行을 配屬하는 것은 「說卦傳」에 근거를 두고 있다. 「說卦傳」에 이르기를 ☰(乾)는 金이라 하였다. ☷(坤)는 地라 하였는데 地는 곧 土다. ☳(震)는 敷라 하였는데 敷는 草木이 開花하는 모습이므로 木에 配屬한다. ☴(巽)는 風, ☵(坎)은 水, ☲(離)는 火라고 하였다. ☶(艮)는 山이라 하였는데 山은 곧 土다. ☱(兌)는 분질러 꺾는 것(毁折)이라 하고 또 剛하다 하였으니 金에 配屬한다.[14]

이와 같이 「說卦傳」에 근거하고 있는 京房의 理論은 별다른 비판 없이 八卦와 五行의 配屬에 關한 定說로 인정받아 왔으며, 醫易會通 이론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八卦와 臟腑 配屬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中國八卦醫學』, 『醫易會通精義』, 『周易與中醫學』, 『醫易啓悟』 등 2,000 여년간의 醫易會通 理論을 총괄 정리한 서적들이 모두 京房의 八卦와 五行 配屬 이론을 따르는 것을 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八卦와 五行의 配屬 관계 및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京房 理論의 타당성 여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著者는 京房 理論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誤謬를 발견했는데, 다음 項目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記述할 것이다.

(2) 京房의 八卦와 五行 配屬 理論의 誤謬

京房이 주장한 八卦와 五行 配屬 理論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그 근거가 된 「說卦傳 11章」의 原文을 살펴보자.

乾 爲天 爲圜 爲君 爲父 爲玉 爲金 爲寒 爲冰 爲大赤 爲良馬 爲老馬 爲瘠馬 爲駁馬 爲木果[15]

坤 爲地 爲母 爲布 爲釜 爲吝嗇 爲均 爲子母牛 爲大輿 爲文 爲衆 爲柄 其於地也 爲黑[16]

震 爲雷 爲龍 爲玄黃 爲專 爲大塗 爲長子 爲決躁 爲蒼莨竹 爲萑葦 其於馬也 爲善鳴 爲馵足 爲作足 爲的顙 其於稼也 爲反生 其究 爲健 爲蕃鮮[17]

巽 爲木 爲風 爲長女 爲繩直 爲工 爲白 爲長 爲高 爲進退 爲不果 爲臭 其於人也 爲寡髮 爲廣顙 爲多白眼 爲近利市三倍 其究 爲躁卦[18]

14) 八宮卦配五行, 本于「說卦伝」. 「說卦伝」以乾爲金 ; 坤爲地卽爲土 ; 震爲敷, 敷爲草木開花之象, 故配木 ; 巽爲風 ; 坎爲水 ; 離爲火 ; 艮爲山卽爲土 ; 兌爲毁折, 爲剛, 故配金. (主編 蕭元, 副主編 廖名, 周易大辭典,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1991, pp 82 - 83)

15) 건은 하늘, 둥근 것, 임금, 아버지, 옥, 금, 찬 것, 얼음, 크게 붉은 것, 좋은 말, 늙은 말, 마른 말, 얼룩 말, 목과가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7)

16) 곤은 땅, 어머니, 퍼는 것, 가마솥, 인색함, 고른 것, 새끼소와 어미소, 큰 수레, 문장, 무리, 자루가 되고, 그 땅에는 검은 빛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7)

17) 진은 우뢰, 용, 현황, 펴는 것, 큰 길, 장자, 결단하고 조급함, 푸른 대나무, 갈대가 되고, 그 말에는 잘 우는 것, 발이 흰 것, 발을 젓는 것, 이마에 흰털이 많은 것이 되고, 그 심는데는 돌아와 생함이 되고 그 궁극에는 굳셈이 되고, 번성하고 고운 것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8)

18) 손은 나무, 바람, 장녀, 먹줄, 목공, 흰색, 김, 높음, 진퇴, 과단성이 없음(열매가 없음), 냄새가 되고 그 사람에는 털이 적음, 이마가 넓음, 눈에 흰자가 많음, 이익에 가까워서 시장에서 세배를 얻음이 되고, 그 궁극에는 조급한 괘가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坎 爲水 爲溝瀆 爲隱伏 爲矯輮 爲弓輪 其於人也 爲加憂 爲心病 爲耳痛 爲血卦 爲赤 其於馬也 爲美脊 爲亟心 爲下首 爲薄蹄 爲曳 其於輿也 爲多眚 爲通 爲月 爲盜 其於木也 爲堅多心[19]

離 爲火 爲日 爲電 爲中女 爲甲胄 爲戈兵 其於人也 爲大腹 爲乾卦 爲鱉 爲蟹 爲蠃 爲蚌 爲龜 其於木也 爲科上槁[20]

艮 爲山 爲徑路 爲小石 爲門闕 爲果蓏 爲閽寺 爲指 爲狗 爲鼠 爲黔喙之屬 其於木也 爲堅多節[21]

兌 爲澤 爲少女 爲巫 爲口舌 爲毁折 爲附決 其於地也 爲剛鹵 爲妾 爲羊[22][23]

위 인용문 중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이 京房 理論의 근거가 된 부분이다. 예를 들어 ☰(乾)을 金에 配屬한 이유는 '乾 爲金' 즉 '건은 금이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 전개 과정에는 중대한 誤謬가 있다. '乾 爲金'의 '金'과 五行의 '金'은 비록 쓰인 문자는 같으나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문자의 동일성을 곧 의미의 동일성으로 파악하는 誤謬를 범한 것이다.

八卦는 우주 만물을 여덟 가지 종류로 나누는 範疇 체계이고, 五行은 우주 만물을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는 範疇 체계이다. 八卦 範疇의 8가지 집합 이름은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이고 五行 範疇의 5가지 집합 이름은 木, 火, 土, 金, 水이다. 여기서의 '金'은 다섯 가지 範疇 중에서 한 가지 範疇 집합을 상징하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說卦傳 11章」에서 '乾 爲金'이라 할 때의 金은 ☰(乾)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 사물이다. 그러므로 이를 추상적 의미로 쓰인 五行 範疇 집합 이름인 '金'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문자는 동일하나 쓰인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乾 爲金'을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지에 대해 살펴보자. 「說卦傳 7章」을 보면 '乾 健也'[24]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初爻에서 三爻까지 다 陽爻인 ☰(乾)이 적극적이요 활동적이요 힘이 강건한 것을 상징함을 설명한 것이다.[25] 따라서 '乾 爲金'은 꺾이지 않는 강건한 陽의 기상을 딱딱함이 특징인 金을 빌려 표현하려한 시도로 이해해야 타당할 것이다.

반면 五行 範疇 집합 이름으로서의 金은 木火의 上升 작용이 끝나고 表陽이 다시 裏面으로 潛伏하려는 收斂의 최초 단계를 의미한다.[26] 따라서 여기에서의 金은 收斂性을 상징하는 것이라 봐야할 것이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 ☰(乾)과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9)

19) 감은 물, 도랑, 숨어 엎드림, 굽은 것을 바로잡음, 활과 바퀴가 되고, 그 사람에는 근심을 더함, 심장병, 귀앓이, 혈괘, 붉은 색이 되고, 그 말에는 아름답게 마름, 급한 마음, 머리를 떨굼, 얇은 발꿈치, 끄는 것이 되고, 그 수레에는 재앙이 많음, 통함, 달, 도적이 되고, 그 나무에는 굳고 심이 많음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21)

20) 리는 불, 해, 번개, 중녀, 갑옷과 투구, 창과 군사가 되고, 그 사람에는 큰 배가 되고, 건괘, 자라, 게, 소라, 조개, 거북이 되고, 그 나무에는 속이 비고 위가 마른 것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17)

21) 간은 산, 지름길, 작은 돌, 작은 문과 큰 문, 과일과 풀 열매, 내시, 손가락, 개, 쥐, 부리가 검은 부류의 짐승이 되고, 그 나무에는 굳어서 마디가 많음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22)

22) 태는 못, 소녀, 무당, 입과 혀, 해지고 꺾어짐, 붙은 것을 결단하는 것이 되고, 그 땅에는 굳센 과 짠 것이 되고, 첩, 양이 된다.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學堂, 2001, p 423)

23) 以上의 原文은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서울, 明文堂, 1993, pp 426 - 430 에서 발췌

24)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서울, 明文堂, 1993, p 424

25) 金敬琢 譯著, 新完譯 周易, 서울, 明文堂, 1985, p 440

26) 韓東錫, 宇宙変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 1991, p 5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五行의 土를 配屬한 것은 「說卦傳 11章」에 있는 '坤 爲地'란 구절 때문이다. 地는 곧 土라 하여 ☷(坤)과 五行의 土를 配屬한 것이다. 이 또한 앞에서 살펴본 ☰(乾) - 金 配屬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 「說卦傳 7章」에 보면 '坤 順也'[27]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初爻에서 三爻까지 다 陰爻인 ☷(坤)가 소극적이요 비활동적이요 힘이 유약한 것을 상징함을 표현한 것이다.[28] 따라서 '坤 爲地'에서 地를 빌려 표현하고자 한 ☷(坤)의 특성은 陰의 靜함과 受容性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반면 五行에서의 土는 陰에도 陽에도 치우치지 않고 不偏不黨한 絶對中和之氣를 의미한다.[29] 五行에서의 土는 中央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坤 爲地'의 地와 五行에서의 土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상에서 八卦와 五行의 配屬 관계 중 ☰(乾) - 金, ☷(坤) - 土 配屬의 논리적 誤謬를 살펴보았는데, ☱(兌) - 金, ☲(離) - 火, ☳(震) - 木, ☴(巽) - 木, ☵(坎) - 水, ☶(艮) - 土의 配屬 논리 또한 동일한 誤謬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하므로 모든 配屬 관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京房의 八卦와 五行 配屬 이론이 옳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이를 통해 京房 理論의 誤謬가 보다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만약 '坤 爲地'라는 문구 때문에 ☷(坤)이 五行의 土와 配屬된다면 「說卦傳 11章」에는 수많은 自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設卦傳 11章」에 수록되어 있는 ☷(坤) 관련 문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坤 爲地 爲母 爲布 爲釜 爲吝嗇 爲均 爲子母牛 爲大輿 爲文 爲衆 爲柄 其於地也 爲黑[30]

위 문장을 보면 '坤爲釜'라는 문구가 있다. 釜는 가마솥으로 곧 쇠덩어리이다. 따라서 京房 理論의 論理대로라면 ☷(坤)은 五行의 金과도 配屬되어야 한다.

「設卦傳 11章」의 또 다른 문장을 살펴보자.

乾 爲天 爲圜 爲君 爲父 爲玉 爲金 爲寒 爲冰 爲大赤 爲良馬 爲老馬 爲瘠馬 爲駁馬 爲木果[31]

'乾爲金'이라는 문구 때문에 ☰(乾)이 五行의 金에 配屬된다면, 寒과 氷은 五行의 水에 해당하므로 '爲寒'과 '爲冰'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乾)은 五行의 水에 配屬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赤은 五行의 火에 해당하므로 '爲大赤'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乾)은 五行의 火에도 配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巽 爲木 爲風 爲長女 爲繩直 爲工 爲白 爲長爲高 爲進退 爲不果 爲臭 其於人也 爲寡髮 爲廣顙 爲多白眼 爲近利市三倍 其究 爲躁卦[32]

'巽爲木'이라는 문구 때문에 ☴(巽)이 五行의 木에 配屬된다면, 白은 五行의 金에 해당하므로 '爲白'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巽)은 五行의 金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說卦傳 11章」에 기재된 歸屬物들의 五行 屬性을 따져보면 동일한 卦象 내에서도 그 성질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歸屬物 한두 가지의 五行 屬性을 근거로 해당 卦象의 五行 屬性을 규정하는 것, 즉 八卦와 五行의 配

27)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서울, 明文堂, 1993, p 424
28) 金敬琢 譯著, 新完譯 周易, 서울, 明文堂, 1985, p 440
29) 韓東錫, 宇宙変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 1991, p 57
30)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서울, 明文堂, 1993, p 427
31) 上揭書, p 426
32) 上揭書, p 42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屬 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說卦傳 11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근거로 著者는 京房의 八卦와 五行 配屬 이론에는 분명한 誤謬가 있다고 생각한다.

2)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關한 諸家學說 考察

八卦와 五行의 配屬에 關한 京房의 理論은 醫易會通 理論에 그대로 수용되었는데, 八卦 思想과 範疇 체계를 이용해 韓醫學을 해석한 專門書인 『中國八卦醫學』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五行 中의 水와 火는 八卦 中에서 坎水, 離火와 같다. 五行 中의 土는 八卦 中에서 艮山, 坤地와 類似하다. 五行 中의 木은 八卦 中에서 巽風, 震雷와 관련 있다. 五行 中의 金은 八卦 中에서 乾이 剛한 것과 兌가 가지런한 性質을 갖는 것과 같다.[33]

위 내용을 보면 ☰(乾)와 金, ☱(兌)와 金, ☲(離)와 火, ☳(震)와 木, ☴(巽)와 木, ☵(坎)와 水, ☶(艮)와 土, ☷(坤)와 土가 配屬되어 있는데 이는 京房의 理論과 일치하는 것이다. 『中國八卦醫學』 뿐 아니라 『醫易會通精義』, 『周易與中醫學』, 『醫易啓悟』 등 2,000여 년간의 醫易會通 理論을 총괄 정리한 서적들을 살펴보면 모두 京房의 이론대로 八卦와 五行을 配屬하고 있다. 그러므로 京房의 理論이 그대로 韓醫學에 수용되어 醫易會通 理論 정립에 응용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된다. 즉 歷代 醫家들이 주장한 八卦와 臟腑의 配屬 理論은 모두 京房의 八卦와 五行 配屬 理論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京房이 주장한 ☰(乾) - 金, ☱(兌) - 金, ☲(離) - 火, ☳(震) - 木, ☴(巽) - 木, ☵(坎) - 水, ☶(艮) - 土, ☷(坤) - 土의 配屬 理論은 誤謬가 있다. 따라서 京房學說을 그대로 따를 경우 諸家學說은 그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京房學說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이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만약 京房學說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八卦와 五行의 配屬 관계에 관한 합리적 설명을 한 후 八卦와 臟腑를 配屬해야 할 것이다. 즉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八卦와 臟腑를 配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諸家學說을 살펴보도록 하자.

(1) 張介賓說 考察

尹暢烈[34]은 "張介賓은 『靈樞』 「九宮八風篇」과 後天八卦方位를 配合하여 ☰(乾) - 小腸, ☱(兌) - 肺, ☲(離) - 心, ☳(震) - 肝, ☴(巽) - 胃, ☵(坎) - 腎, ☶(艮) - 大腸, ☷(坤) - 脾로 配屬하였다."[35]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헌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類經圖翼』 「九宮八風圖」를 근거로 삼았으리라 추측된다.

33) 五行之中的水与火, 和八卦之中的坎之水与離卦之火相同 ; 五行之中的土, 和八卦之中的艮卦之山及坤卦之地其義類似 ; 五行之中的木, 和八卦之中的巽卦之風及震卦之雷亦有有關 ; 五行之中的金, 和八卦之中的乾卦之剛及兌卦之齊性可比附.(劉杰, 袁峻 著, 中國八卦医學, 中國 靑島市, 靑島出版社, 1993, p 147)

34) 大田大學校 韓医科大學 原典敎室

35)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屬에 關한 硏究, 大韓原典医史學會誌 Vol.12-2, 1999, p 21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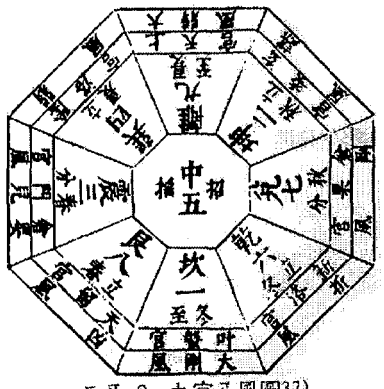


도표 2. 九宮八風圖[37]

도표 2. 九宮八風圖[36]

도표 2의 「九宮八風圖」를 보면 『靈樞』 「九宮八風篇」과 後天八卦方位가 결합되어 있어 尹暢烈이 이를 근거로 ☲(離) - 心, ☷(坤) - 脾, ☱(兌) - 肺, ☰(乾) - 小腸, ☵(坎) - 腎, ☶(艮) - 大腸, ☳(震) - 肝, ☴(巽) - 胃의 配屬을 張介賓 說이라고 주장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九宮八風圖에는 臟腑의 명칭이 없다. 하지만 『靈樞』 「九宮八風篇」과 後天八卦方位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配屬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우선 『靈樞』 「九宮八風篇」을 살펴보자.

風從南方來, 名曰大弱風, 其傷人也, 內舍於心 …… 風從西南方來, 名曰謀風, 其傷人也, 內舍於脾 …… 風從西方來, 名曰剛風, 其傷人也, 內舍於肺 …… 風從西北方來, 名曰折風, 其傷人也, 內舍於小腸 …… 風從北方來, 名曰大剛風, 其傷人也, 內舍於腎 …… 風從東北方來, 名曰凶風, 其傷人也, 內舍於大腸 …… 風從東方來, 名曰嬰兒風, 其傷人也, 內舍於肝 …… 風從東南方來, 名曰弱風, 其傷人也, 內舍於胃 ……[37]

위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南-心
(大弱風)

東南-胃 (弱風)　　西南-脾 (謀風)

東-肝 (嬰兒風)　　西-肺 (剛風)

東北-大腸 (凶風)　　西北-小腸 (折風)

北-腎
(大剛風)

도표 3. 八風의 名稱과 方位

이번에는 後天八卦方位에 대해 살펴보자.

後天八卦方位는 文王八卦方位라고도 한다. 중국 北宋 때의 學者인 邵雍[38]이 주장하였다. ☲(離)는 南, ☵(坎)은 北, ☳(震)은 東, ☱(兌)는 西, ☴(巽)은 東南, ☶(艮)은 東北, ☷(坤)은 西南, ☰(乾)은 西北에 배치하였다.[39]

위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張介賓 原著, 類經図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58

3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医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328

38) 中國 北宋 인종, 영종, 신종 때의 學者. 시호는 康節. 道家에서 図書先天象數學을 배우고 象數를 원리로 하는 관념론적 철학을 수립하였다.(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529)

39) 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35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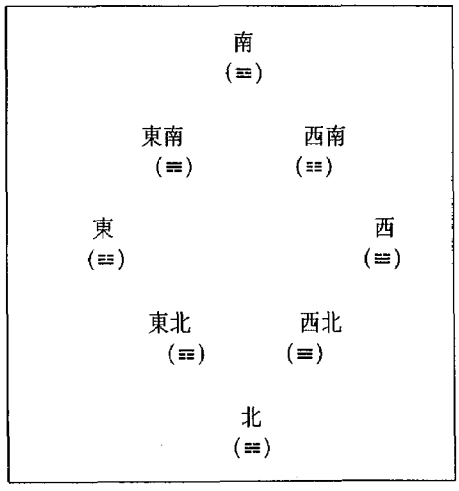



도표 4. 八方과 八卦

도표 3과 도표 4에는 '方位'라는 공통요소가 있다. 따라서 方位를 기준으로 八卦와 臟腑를 配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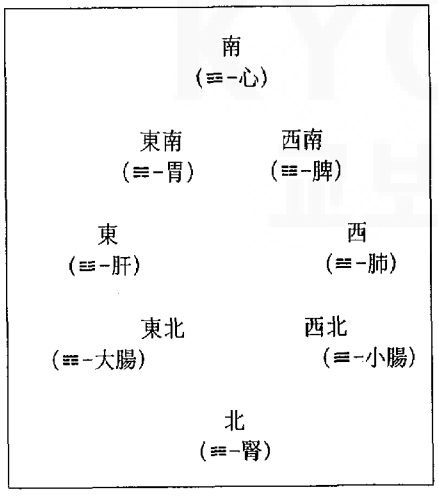



도표 5. 方位를 기준으로 한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

이러한 과정을 거쳐 張介賓 說이 성립된 것이다. 즉 張介賓 說은 도표 5에서 아래와 같이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관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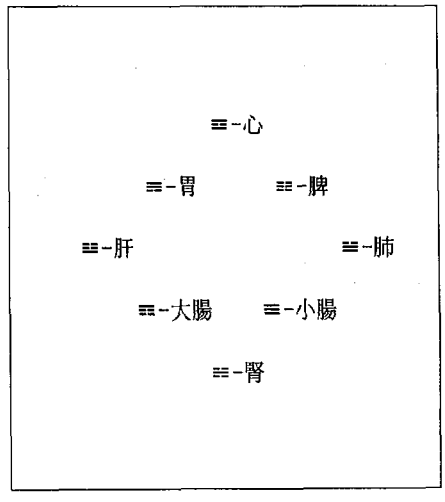



도표 6. 八卦와 臟腑 配屬에 關한 張介賓 說

도표 6의 張介賓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卦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巽) - 木, ☰(乾) - 金, ☶(艮) - 土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張介賓 說에서는 ☴(巽) - 土(胃), ☰(乾) - 火(小腸), ☶(艮) - 金(大陽)으로 配屬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靈樞』「九宮八風篇」 이론과 後天八卦方位 이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靈樞』「九宮八風篇」의 이론과 後天八卦方位 이론을 결합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즉 『靈樞』「九宮八風篇」의 八方과 臟腑 配屬이 八風이 침범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다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先天八卦方位도 있는데 굳이 後天八卦方位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공통요소인 八方을 매개로 두 이론을 결합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둘째, ☰(乾) - 小腸, ☱(兌) - 肺, ☲(離)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心, ☳(震) - 肝, ☴(巽) - 胃, ☵(坎) - 腎, ☶(艮) - 大腸, ☷(坤) - 脾의 配屬 결과에 불균형이 있다. 즉 五臟五腑 중에서 肝, 心, 脾, 肺, 腎, 胃, 小腸, 大腸만 八卦와 配屬되고 膽, 膀胱은 빠져 있는데 이렇게 膽과 膀胱만 특별 취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張介賓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張介賓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王好古[40]說 考察

王好古 說은 그의 저서 『此事難知』[41] 「面部形色之圖」에 나타나 있다. 그는 面部의 察色 부위를 記述하면서 ☰(乾) - 大腸, ☱(兌) - 肺, 離 - 心, ☳(震) - 肝, ☴(巽) - 膽, ☵(坎) - 腎, ☶(艮) - 小腸, ☷(坤) - 脾로 配屬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도표로 표현하였다.

〈面 部 形 色 之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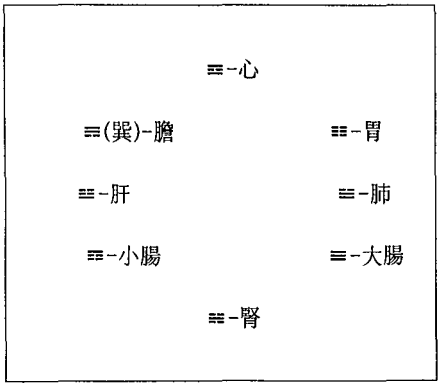



도표 7. 八卦와 臟腑 配屬에 關한 王好古說[42]

도표 7의 王好古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卦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艮) - 土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王好古 說에서는 ☶(艮) - 火(小腸)로 配屬된 것이다. 이상의 王好古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卦와 臟腑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乾) - 大腸, ☱(兌) - 肺, 離 - 心, ☳(震) - 肝, ☴(巽) - 膽, ☵(坎) - 腎, ☶(艮) - 小腸, ☷(坤) - 脾의 配屬 결과에 불균형이 있다. 즉 五臟五腑 중에서 肝, 心, 肺, 腎, 膽, 小腸, 胃, 大腸만 八卦와 配屬되고 脾, 膀胱은 빠져 있는데 이렇게 脾와 膀胱만 특별 취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王好古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王好古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0) 中國 元나라 때의 医學者. 호는 海藏이며 당시의 趙州 사람. 經史에 통달했고 医方을 좋아하였으며 金나라 때의 名医 李東垣에게 배워 医學에 정통하였다. 趙州 医學 교수가 되었으며 관내의 医學을 향상시켰다. 평생 동안 저술이 많아서 『湯液本草』『此事難知』 등을 저술하였다. 医學 이론상 그는 內因의 辨証상의 의의를 중시하였고 脾와 腎의 溫補를 주장하였다.(東洋医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 東洋医學大辭典⑦,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346)

41) 中國 元나라 때의 王好古가 1308년에 편찬한 医書. 전 2권. 王好古가 스승 李杲의 医學 論述을 편집한 것으로 기초 이론에 속하는 經絡, 臟腑, 病理, 病源과 임상에 속하는 辨証, 治療法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그 중 傷寒六經 치료에 대한 서술이 특히 상세하며 李杲의 학술 사상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東洋医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 東洋医學大辭典⑨,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468)

42) 王好古 原著, 大田大學校 韓医科大學 第10期 卒業準備委員會 譯, 國譯 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98, p 23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王肯堂[43]說 考察

王肯堂 說은 그의 저서 『證治準繩』[44]에 나타나 있다. 그는 眼의 八廓와 八卦의 配屬을 설명하면서 八卦와 臟腑의 配屬法을 밝혔는데,[45] ☰(乾) - 肺·大腸, ☱(兌) - 腎·下焦, ☲(離) - 心·小腸, ☳(震) - 肝·膽, ☴(巽) - 肝·中焦, ☵(坎) - 腎·膀胱, ☶(艮) - 命門·上焦, ☷(坤) - 脾·胃로 配屬하였다.[46]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肺·大腸 | 腎·下焦 | 心·小腸 | 肝·膽 | 肝·中焦 | 腎·膀胱 | 命門·上焦 | 脾·胃 |

도표 8. 王肯堂 說

도표 8의 王肯堂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卦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兌) - 金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王肯堂 說에서는 ☱(兌) - 水(腎)로 配屬된 것이다. 또 ☶(艮) - 命門, ☶(艮) - 上焦, ☴(巽) - 中焦, ☱(兌) - 下焦로 配屬되었다. 이와 같은 王肯堂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卦와 臟腑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三焦와 命門이 도입된 이유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세째, ☰(乾) - 肺·大腸, ☱(兌) - 腎·下焦, ☲(離) - 心·小腸, ☳(震) - 肝·膽, ☴(巽) - 肝·中焦, ☵(坎) - 腎·膀胱, ☶(艮) - 命門·上焦, ☷(坤) - 脾·胃의 配屬 결과에 불균형이 있다. 즉 五臟五腑 중에서 肝과 腎만 두 개의 卦象과 중복 配屬되어 있는데 이렇게 肝과 腎만 특별 취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王肯堂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王肯堂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馮道立[47]說 考察

馮道立은 ☰(乾) - 督脈, ☱(兌) - 肺·大腸, ☲(離) - 心·小腸, ☳(震) - 肝·膽, ☴(巽) - 心包絡·三焦, ☵(坎) - 腎·膀胱, ☶(艮) - 脾·胃, ☷(坤) - 任脈으로 配屬하였다.[48]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 中國 明나라 때의 医學者. 지금의 江蘇省 사람. 고향에서 医學을 연구하며 환자를 치료하여 医術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많은 医書를 읽고 자신의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11년에 걸쳐 『証治準繩』 44권을 편성하였다.(東洋医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 東洋医學大辭典⑦,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 330 - 331)

44) 中國 明나라 王肯堂이 편찬하여 1602년에 간행된 총서. 다루고 있는 科目과 病種이 광범위하며 病証마다 먼저 歷代 医學者들의 치료 경험을 소개하고 후에 자기의 견해를 천명하였으며 病証과 脈狀의 같고 다름을 변별하고 因証論治하여 立法處方하였다. 수록한 자료가 풍부하고 논술의 조리도 분명하다.(東洋医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 東洋医學大辭典⑦,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335)

45)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合에 關한 硏究, 大韓原典医史學會誌 Vol.12-2, 1999, p 219

46) 応乎八卦, 脈絡経緯于腦, 貫通臟腑 ····· 乾居西北, 絡通大腸之腑 臟屬肺 ····· 坎正北方, 絡通膀胱之腑, 臟屬于腎 ····· 艮位東北, 絡通上焦之腑, 臟配命門 ····· 震正東方, 絡通胆腑, 臟屬于肝 ····· 巽位東南, 絡通中焦之腑, 臟屬肝絡 ····· 離正南方, 絡通小腸之腑, 臟屬于心 ····· 坤位西南, 絡通胃之腑, 臟屬于脾 ····· 兌正西方, 絡通下焦之腑, 臟配腎絡 ·····. (王肯堂, 証治準繩, 中國 北京, 中國中医藥出版社, 1997, p 227)

47) 中國 靑나라 때의 學者. 江蘇 東台 사람. 字는 務堂. 著書로는 易経爻辰貫 2권이 있다.(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253)

48)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合에 關한 硏究, 大韓原典医史學會誌 Vol.12 -2, 1999, p 21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督脈 | 肺·大腸 | 心·小腸 | 肝·膽 | 心包絡·三焦 | 腎·膀胱 | 脾·胃 | 任脈 |

도표 9. 馮道立 說

그런데 馮道立 說은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乾), ☷(坤)을 제외한 나머지 卦象에 配屬된 臟腑 명칭이 臟腑가 아니라 經絡을 지칭한다고 가정할 경우이다. 이 경우는 八卦와 經絡의 配屬 문제이기 때문에 본 論文의 주제를 벗어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督脈과 任脈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이 經絡이 아니라 臟腑를 지칭한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도표 9의 馮道立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卦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巽) - 木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馮道立 說에서는 ☴(巽) - 火(心包, 三焦)로 配屬된 것이다. 또 ☰(乾) - 督脈, ☷(坤) - 任脈으로 配屬되었다. 이와 같은 馮道立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卦와 臟腑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奇經八脈 중 督脈과 任脈만 도입되어 八卦와 配屬된 이유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馮道立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馮道立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 邵同珍[49]說 考察

邵同珍은 그의 著書 『醫易一理』에서 ☰(乾) - 肺, ☱(兌) - 左手, ☲(離) - 心, ☳(震) - 左足, ☴(巽) - 右手, ☵(坎) - 腎, ☶(艮) - 右足, ☷(坤) - 肝으로 配屬하였다.[50]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肺 | 左手 | 心 | 左足 | 右手 | 腎 | 右足 | 肝 |

도표 10. 八卦와 臟腑 配屬에 關한 邵同珍 說

도표 10의 邵同珍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卦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坤) - 木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邵同珍 說에서는 ☷(坤) - 木(肝)으로 配屬된 것이다. 또 手足을 도입하여 八卦와 배합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邵同珍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卦와 臟腑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인체의 여러 부위 중 手足만 도입되어 臟腑와 동등하게 八卦와 配屬된 이유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邵同珍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邵同珍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49) 1897前後在世. 湖北江夏(今武昌)人. 字葆誠, 号四九居士。先入仕途爲官 年老棄官歸隱 爲人診療疾病. 저유(医易一理)(陣玉堂 編著, 中國 近現代人物名号大辭典, 中國, 1993, p 541)

50) 六十四卦配人身図 『周易參同契』已詳論之 ····· 乾爲首 爲肺 坤爲腹 爲肝 離爲火 爲心 坎爲水 爲腎 四卦配諸四臟 兌爲左手 巽爲右手 震爲左足 艮爲右足 四卦又爲脾土 土居四維 脾主四肢 ·····.(邵同珍 原著, 朱邦賢 王若水 總審閱, 上海中医學院中医文獻研究所 主編, 歷代中医珍本集成 第16卷 內医易一理, 中國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8, p 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니라고 생각한다.

(6) 何夢瑤[51]說 考察

何夢瑤는 그의 저서 『醫碥』[52]에서 肺 - ☰(乾)·☱(兌), 心 - ☲(離), 肝 - ☳(震)·☴(巽), 腎 - ☵(坎), 脾 - ☷(坤)·☶(艮)으로 八卦와 臟腑를 配屬하였다.[53]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肺 | | 心 | 肝 | | 腎 | 脾 | |

도표 11. 何夢瑤 說

도표 11의 何夢瑤 說을 살펴보면, 八卦와 五行의 配屬에 관한 京房學說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京房學說이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따른 何夢瑤 說 역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何夢瑤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7) 現代 中國醫家들의 諸說 考察

① 劉炳權[54] 說

劉炳權은 ☰(乾) - 大腸, ☱(兌) - 肺, 離 - 心, ☳(震) - 肝, ☴(巽) - 膽, ☵(坎) - 腎, ☶(艮) - 胃, ☷(坤) - 脾으로 配屬하였다.[55]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大腸 | 肺 | 心 | 肝 | 膽 | 腎 | 胃 | 脾 |

도표 12. 劉炳權 說

도표 12의 劉炳權 說을 살펴보면, 八卦와 五行의 配屬에 관한 京房學說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京房學說이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따른 劉炳權 說 역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劉炳權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② 紫竹公, 筱山暘 說

紫竹公 筱山暘은 ☰(乾) - 腦, ☱(兌) - 肺, ☲(離) - 心·命門, ☳(震) - 肝·膽, ☴(巽) - 肝, ☵(坎) - 腎, ☶(艮) - 脾, ☷(坤) - 脾·胃·大腸으로 配屬하였다.[56]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 中國 靑나라 때의 관리이며 文人 겸 医學者. 廣東 南海 사람. 관직으로는 奉天 遼陽州에 이르렀고 思恩에서 임관할 때는 疫癘가 유행함에 方藥을 베풀었으며 벼슬에 뜻이 없었으므로 鄕里로 돌아와서 의료에 종사하였다. 『医碥』 등의 책을 著述하였다.(東洋医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 東洋医學大辭典⑪,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19)

52) 中國 靑나라 何夢瑤가 편찬하여 1751년에 간행된 医書. 기초와 임상을 결합시킨 医學入門書.(東洋医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 東洋医學大辭典⑧,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155)

53) 心肺居膈上 而肺尤高 天之分也 故屬乾金 ····· 陽氣上升至心而盛 陽盛卽爲火 故心屬火 于卦爲離 ····· 兌 乾上劃之変也 肺居心上 乾之上劃也 上劃変而爲兌 于時爲秋 于象爲金 金性沈降 秋氣斂肅 陽氣升極而降 由肺而降 故肺又屬兌金 ····· 坎外陰而內陽 陽氣潛藏于黃泉之中 靜極夏動 故冬至而一陽生 驚蟄而雷擊也 腎得命門之火所蒸 化氣以上 肝受之而升騰 故肝于時爲春 于象爲木 于卦爲震雷巽風 ····· 脾臟居中 爲上下升降之樞紐 飮食入胃 脾爲行運其氣于上下內外 猶土之化布于四時 故屬土于卦爲坤爲艮 ·····.
(李浚川 蕭漢明 主編, 医易會通精義,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 287-291)

54) 中國 廣州市 大德路 111号 廣東省中医院主任導師 (http://.wsjk.com.cn)

55)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合에 關한 硏究, 大韓原典医史學會誌 Vol.12-2, 1999, p 219

56) 紫竹公 筱山暘 編著, 周易与養生, 首都師範大學出版社, 北京, 1994, pp 71 - 7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腦 | 肺 | 心·命門 | 肝·膽 | 肝 | 腎 | 脾 | 脾·胃·小腸·大腸 |

도표 13. 紫竹公, 筱山暘 說

도표 13의 紫竹公 筱山暘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卦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坤) - 土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紫竹公 筱山暘 說에서는 ☷(坤) - 火·土(脾·胃)·金(大腸)으로 配屬된 것이다. 또 腦를 도입하여 八卦와 배합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紫竹公 筱山暘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卦와 臟腑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乾)는 왕을 상징한다. 인체에서는 생명활동을 총괄하여 主宰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腦와 配屬한다."[57]고 하였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58], '神爲一身之主 …… 心藏神'[59] '心者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60]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에서는 인체 생명활동을 主宰하는 臟腑가 心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乾)과 心을 配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乾) - 腦, ☱(兌) - 肺, ☲(離) - 心·命門, ☳(震) - 肝·膽, ☴(巽) - 肝, ☵(坎) - 腎, ☶(艮) - 脾, ☷(坤) - 脾·胃·小腸·大腸의 配屬 결과에 불균형이 있다. 먼저 五臟五腑 중에서 肝과 脾만 두 개의 卦象과 중복 配屬되어 있는데 이렇게 肝과 脾만 특별 취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 ☳(震), ☲(離), ☷(坤) 만 두 개 이상의 臟腑와 짝지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膽과 膀胱만 配屬에서 빠져 있는데, 그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紫竹公 筱山暘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紫竹公 筱山暘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③ 田合祿 說

田合祿은 ☰(乾) - 三焦, ☱(兌) - 肺, 離 - 心, ☳(震) - 肝, ☴(巽) - 膽, ☵(坎) - 腎, ☶(艮) - 胃, ☷(坤) - 脾로 配屬하였다.[61]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三焦 | 肺 | 心 | 肝 | 膽 | 腎 | 胃 | 脾 |

도표 14. 田合祿 說

도표 14의 田合祿 說을 살펴보면, 劉炳權 說과 거의 비슷한데 ☰(乾) - 三焦의 配屬만 다르다. 즉 劉炳權 說과 마찬가지로 八卦와 五行의 配屬에 관한 京房學說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京房學說이 오류가 있으므로 田合祿 說 역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田合祿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乾) - 三焦의 配屬 관계가 다르므로 田合祿 說이 京房學說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

57) "乾爲天卦, 爲君, 象征人体生命活動必須有總的主宰, 在人体与腦通応." (紫竹公 筱山暘 編著, 周易与養生, 首都師範大學出版社, 北京, 1994, pp 71 - 72)

5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医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34

59) 許浚 著, 原本 東医宝鑑, 南山堂, 1994, p 94

6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東洋医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299

61)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合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医史學會誌 Vol.12-2, 1999, p 21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니라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田合祿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八卦와 臟腑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乾) - 三焦, ☱(兌) - 肺, 離 - 心, ☳(震) - 肝, ☴(巽) - 膽, ☵(坎) - 腎, ☶(艮) - 胃, ☷(坤) - 脾의 配屬 결과에 불균형이 있다. 五臟六腑 중에서 小腸·大腸·膀胱만 配屬에서 빠져 있는데, 그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彭靜山[62] 說

彭靜山은 王肯堂의 『證治準繩』說을 繼承하되 약간 變化시켜 ☰(乾) - 肺·大腸, ☱(兌) - 下焦, ☲(離) - 心·小腸, ☳(震) - 肝·膽, ☴(巽) - 中焦, ☵(坎) - 腎·膀胱, ☶(艮) - 上焦, ☷(坤) - 脾·胃를 配屬하였다.[63]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肺·大腸 | 下焦 | 心·小腸 | 肝·膽 | 中焦 | 腎·膀胱 | 上焦 | 脾·胃 |

도표 15. 彭靜山 說

도표 15의 彭靜山 說을 살펴보면 京房學說의 八卦와 五行 配屬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京房學說을 따르면 ☱(兌) - 金의 配屬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彭靜山 說에서는 ☱(兌) - 下焦, ☴(巽) - 中焦, ☶(艮) - 上焦로 配屬되었다. 이와 같은 彭靜山 說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八卦와 臟腑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上焦·中焦·下焦가 도입되어 각각 ☶(艮)·☴(巽)·☱(兌)와 配屬되는 이유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彭靜山 說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彭靜山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8) 尹暢烈[64] 說 考察

尹暢烈은 ☰(乾) - 命門, ☱(兌) - 肺, 離 - 心, ☳(震) - 肝, ☴(巽) - 膽, ☵(坎) - 腎, ☶(艮) - 胃, ☷(坤) - 脾로 配屬하였다. 이는 劉炳權 說의 ☰(乾) - 大腸과 田合祿 說의 ☰(乾) - 三焦의 配屬이 ☰(乾) - 命門으로 바뀐 것이다.[65]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八卦 | ☰(乾) | ☱(兌) | ☲(離) | ☳(震) | ☴(巽) | ☵(坎) | ☶(艮) | ☷(坤) |
|---|---|---|---|---|---|---|---|---|
| 臟腑 | 命門 | 肺 | 心 | 肝 | 膽 | 腎 | 胃 | 脾 |

도표 16. 尹暢烈 說

도표 16의 尹暢烈 說을 살펴보면, 劉炳權 說과 거의 비슷하므로 劉炳權 說과 마찬가지로 八卦와 五行의 配屬에 관한 京房學說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京房學說이 오류가 있으므로 尹暢烈 說 역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尹暢烈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乾) - 命門의 配屬 관계가 다르므로 尹暢烈 說이 京房學說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

62) 生于 1909 年, 遼寧開原縣人, 現爲遼寧中医學院附屬医院教授. 彭氏 16歲 學医, 受教于一代名医馬二琴先生, 后進修西医. 臨証近70年, 精通内, 外, 婦, 兒, 針灸, 提倡針藥幷用臨床経驗豊富. (http://www.networkchinese.com)

63)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合에 關한 硏究, 大韓原典医史學會誌 Vol.12-2, 1999, p 219

64) 大田大學校 原典教室

65)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屬에 關한 硏究, 大韓原典医史學會誌 Vol.12-2, 1999, pp 217-21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니라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尹暢烈 說은 八卦와 臟腑 配屬에 관한 올바른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八卦와 臟腑 配屬의 기준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配屬 원리에 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둘째, ☰(乾) - 命門, ☱(兌) - 肺, 離 - 心, ☳(震) - 肝, ☴(巽) - 膽, ☵(坎) - 腎, ☶(艮) - 胃, ☷(坤) - 脾의 配屬 결과에 불균형이 있다. 五臟五腑 중에서 小腸·大腸·膀胱만 配屬에서 빠져 있는데, 그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9) 諸家學說 考察 結論

결론적으로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관한 諸家學說은 모두 誤謬가 있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京房 理論이 八卦와 五行의 配屬에 關한 定說로 전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八卦와 臟腑의 配屬 과정에서는 이것이 무시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乾)과 金을 配屬하는 것이 옳다면, 당연히 ☰(乾)은 臟腑 중에서 金에 해당하는 肺나 大腸 혹은 둘 다와 配屬되어야 한다. 그런데 ☰(乾)과 小腸을 配屬하거나 ☰(乾)과 三焦를 配屬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모순이다. 五行과 臟腑의 配屬 관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八卦와 五行의 配屬 관계에 따라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가 결정되어야 옳기 때문이다. 아마도 歷代 醫家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觀點대로 나름대로의 學說을 주장한 까닭은 京房 理論에 따라 八卦와 臟腑를 配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補完하는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 2. 臟腑의 八卦 配屬에 關한 假說

여기에서는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關한 著者의 假說을 논리적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먼저 陰陽, 五行, 八卦 등의 기본 개념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關한 假說을 수립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수학의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수학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미리 밝혀둘 것은 著者는 五臟五腑의 분류법에 근거하여 八卦와 臟腑를 配屬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의학에서는 臟腑를 五臟六腑로 분류하되, 經絡學說에 적용할 때는 五臟에 心包를 덧붙여 六臟六腑의 분류법을, 臟腑學說에 적용할 때는 六腑에서 三焦를 빼고 五臟五腑의 분류법을 사용한다.[66] 그런데 八卦와 臟腑의 配屬은 내용상 臟腑學說에 가까우므로 五臟五腑의 분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1)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陰陽, 四象, 八卦의 의미

(1)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太極과 陰陽

「繫辭上傳 11章」에 '易有太極 是生兩儀'[67]라는 구절이 있다. 太極은 最高無上의 本源을 가리키는데,[68] 本源이란 아무 것도 분리되지 않은 純一한 근본 상태를 의미한다. 兩儀란 天地 또는 陰陽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주의 大法이다.[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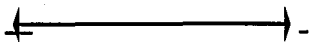
太極은 純一하므로 1範疇 체계 즉 範疇가 나뉘지 않는 개념이고, 兩儀는 '兩'이란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2範疇 체계다. 太極은 範疇를 나눌 수 없지만, 兩儀 즉 陰陽은 우주를 두 가

66) 김완희 김광중 著,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一中社, 1996, p 21
67)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1993, p 381
68) 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1204
69) 上揭書, p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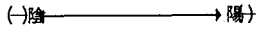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지 範疇로 나누어 보는 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太極은 좌표로 나타낼 수 없지만 陰陽은 다음과 같은 일차원 좌표 즉 일차원 수직선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좌표 1. 일차원 수직선




좌표 2. 陰陽 수직선

좌표 1은 수학에서 흔히 보는 일차원 수직선이고, 좌표 2는 -와 + 기호 대신 陰(--)과 陽(−)을 수직선 양끝에 써 놓은 것으로 著者가 陰陽 수직선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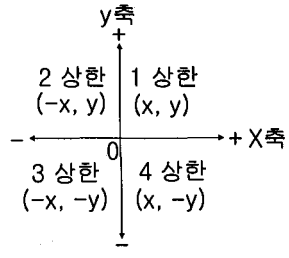
좌표 1과 좌표 2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일차원 수직선은 모든 實數가 -와 +의 두 종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일차원 수직선은 모든 實數를 -와 +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좌표 2의 陰陽 수직선은 우주 만물이 陰(--)的인 것과 陽(−)的인 것의 두 종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陰陽 수직선은 우주 만물을 陰(--)的인 것과 陽(−)的인 것의 두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陰陽은 간단히 말해서 2범주 체계, 혹은 일차원적 範疇 체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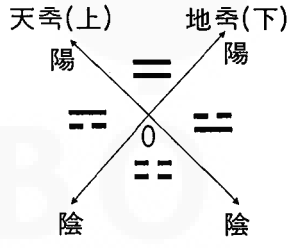
(2)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四象과 五行

①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四象

「繫辭上傳 11章」에 '兩儀生四象'[70]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陰陽의 2範疇 체계가 4範疇 체계로 확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卦象 구조를 살펴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四象은 ⚌(太陽), ⚍(少陰), ⚎(少陽), ⚏(太陰)으로 −(陽)과 --(陰) 두 종류의 爻가 상하로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 3. 이차원 평면좌표




좌표 4. 四象天地 좌표

좌표 3은 수학에서 흔히 보는 이차원 평면 좌표로 일차원 수직선 두 개를 직각으로 교차시킨 것이고, 좌표 4는 陰陽 수직선 두 개를 직각으로 교차시킨 것으로 著者가 四象天地 좌표라 이름 붙인 것이다. 좌표 4에서 x축, y축 대신 天축, 地축이라 하고 그 옆에 각각 上과 下를 쓴 이유는 卦象을 형성할 때 어느 축이 上爻가 되고 어느 축이 下爻가 되는 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少陰)은 天축이 陰이기 때문에 上爻가 --가 되고, 地축이 陽이기 때문에 下爻가 −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四象天地 좌표라 이름한 것은 좌표 4가 天축과 地축의 교차에 의해 四象을 표현하

70)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1993, p 38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 때문이다. 또 좌표 3과는 달리 각 축이 45° 씩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太陽), ☱(少陰), ☲(少陽), ☷(太陰)이 四正方에 위치하는 것이 卦象의 성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좌표 3과 좌표 4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좌표 3의 이차원 평면좌표는 모든 두 實數의 조합이 (x, y), (-x, y), (-x, -y), (x, -y)의 4가지 숫자집단으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이차원 평면좌표는 모든 실수(實數)의 짝을 네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좌표 4의 四象天地 좌표는 만물이 네 종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四象天地 좌표는 우주 만물을 ☰(太陽), ☱(少陰), ☲(少陽), ☷(太陰)의 네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四象은 간단히 말해서 4범주 체계, 혹은 이차원적 範疇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② 四象과 五行의 관계

가) ☰, ☱, ☲, ☷의 성질

☰(太陽)의 卦象 구조를 살펴보면 ⚊(陽爻)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은 오로지 陽만 존재하는 상태, 즉 陽이 극한적으로 발달된 상태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太陰)의 卦象 구조를 살펴보면 ⚋(陰爻)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은 오로지 陰만 존재하는 상태, 즉 陰이 극한적으로 발달된 상태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 ☷은 동일한 爻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성질을 유추하기가 쉽다. 그런데 ☱과 ☲은 ⚊(陽爻) 한 개와 ⚋(陰爻) 한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爻의 上下 위치만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 ☷에 비해 성질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과 ☲의 성질을 유추하려면 먼저 ⚊(陽爻)와 ⚋(陰爻)의 성질을 알아야하는데, ⚊(陽爻)는 陽의 속성상 상승하는 성질이 있고 ⚋(陰爻)는 陰의 속성상 하강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과 ☲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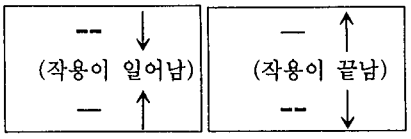



도표 17. ☱과 ☲의 성질

즉 ☱은 陰의 자리에 있는 陽은 자신의 자리로 가기 위해 상승하고 陽의 자리에 있는 陰 또한 자신의 자리로 가기 위해 下降하는 상태, 즉 가운데에서 陰과 陽이 만나 활발히 작용하는 상태를 상징한다.

그리고 ☲은 陰과 陽이 이미 자신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 더 이상의 이동과 이로 인한 활발한 작용이 없어진 상태, 즉 陰과 陽이 상호작용을 마치고 흩어진 상태를 상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 ☱, ☲, ☷의 성질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四象 | 四象의 성질 |
|---|---|
| ☰ | 陽이 극한적으로 발달된 상태 |
| ☱ | 陰과 陽이 활발히 작용하는 상태 |
| ☲ | 陰과 陽의 작용이 끝난 상태 |
| ☷ | 陰이 극한적으로 발달된 상태 |

도표 18. 四象의 성질

나) 木, 火, 土, 金, 水의 성질

木과 火는 生長 과정을 상징하는데, 특히 木은 裏陽이 表面으로 분산하려는 발전의 최초 단계 즉 發生, 湧出 등의 활동상태를 상징하고, 火는 分散, 分裂, 長茂 작용을 상징한다. 土는 不偏不黨한 絶對中和之氣로써 生長의 陽 작용이나 收藏의 陰 작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公正無私한 中 작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金과 水는 收藏 과정을 상징하는데, 특히 金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表陽이 다시 裏面으로 잠복하려는 收藏의 최초 단계를 상징하고, 水는 내부 깊은 곳으로의 凝結을 상징한다.[71]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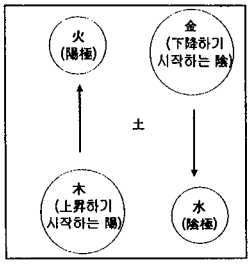



도표 19. 五行의 순환

도표 19에서 '木은 上升하기 시작하는 陽'이란 '木은 陽氣가 점점 성장함을 상징한다.'는 의미고, '金은 下降하기 시작하는 陰'이란 '金은 陰氣가 점점 성장함을 상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火는 陽極'이란 '火는 陽의 發散 작용이 極에 이른 상태를 상징한다.'는 의미고, '水는 陰極'이란 '水는 陰의 收斂 작용이 極에 이른 상태를 상징한다.'는 의미다. 土를 가운데 적어 놓은 것은 '土가 木火金水의 작용을 조절한다.'는 의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木, 火, 土, 金, 水의 성질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五行 | 五行의 성질 |
|---|---|
| 火 | '陽極 : 長'을 상징 |
| 木 | '陽의 上昇 시작 : 生'을 상징 |
| 土 | '中의 조절 작용'을 상징 |
| 金 | '陰의 下降 시작 : 收'를 상징 |
| 水 | '陰極 : 藏'을 상징 |

도표 20. 木, 火, 土, 金, 水의 성질

71) 韓東錫 著,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사, 1996, pp 52 - 62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木, 火, 土, 金, 水의 성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木, 火, 金, 水와 土의 성질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木, 火, 金, 水는 陽이나 陰의 기능을 상징하는데 반해 土는 陰도 陽도 아닌 絶對中和之氣로서 中의 조절 기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土가 中의 조절 기능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土가 木, 火, 金, 水의 성질을 골고루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木, 火, 金, 水 중의 특정 성질에 치우침 없이 나머지 기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土와 나머지 木, 火, 金, 水를 동등한 범주 요소로 볼 수 없다. 木, 火, 金, 水가 순수 범주 요소로서 원자에 해당한다면 土는 木, 火, 金, 水가 골고루 섞여진 요소이므로 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범주 체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土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五行은 순수한 범주 체계라고 말할 수 없다. '木, 火, 金, 水의 4 범주 요소+ 4범주 요소가 골고루 섞여진 土'로 구성된 체계인 것이다.[72]

다) 四象과 五行의 관계

=은 ㅡ가 두 개 겹쳐진 卦象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陽이 극한적으로 발달한 상태를 상징한다. 이는 陽極의 상태를 상징하는 火와 일치한다.

==은 --가 두 개 겹쳐진 卦象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陰이 극한적으로 발달한 상태를 상징한다. 이는 陰極의 상태를 상징하는 水와 일치한다.

=은 初爻는 ㅡ이고 上爻는 --이다. 陽의 세력이 점점 성장하면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陰의 세력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

72) 著者 註 : 이상의 논리에 의해 五行의 相生과 相剋 이론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내면에 잠복되어 있던 陽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陰을 뚫고 湧出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木과 일치한다.

==은 初爻는 --이고 上爻는 ―이다. 陰의 세력이 점점 성장하면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陽의 세력을 끌어당겨 수렴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는 외부로 확산된 陽을 다시 끌어들여 저장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金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四象과 土를 제외한 五行은 동일한 범주 체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四象 체계에 조절작용을 하는 중앙의 개념이 더해지면 五行 체계가 되고, 五行 체계에서 중앙의 개념이 빠지면 四象 체계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四象과 五行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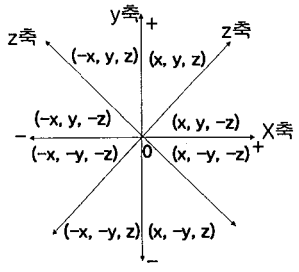
| 四象 | ⚌ | ⚍ | ⚎ | ⚏ |
|---|---|---|---|---|
| 五行 | 木 | 火 | 金 | 水 |

도표 21. 四象과 五行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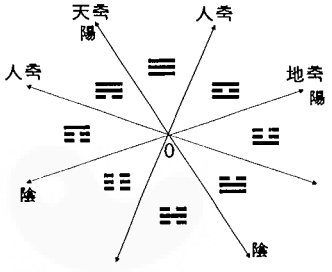
(3)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八卦

①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八卦

「繫辭上傳 11章」에 '四象生八卦'[73]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陰陽의 2範疇 체계가 四象을 거쳐 8範疇 체계로 확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卦象 구조를 살펴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八卦는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으로 ―(陽)과 --(陰) 두 종류의 爻가 上下로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 5. 평면화된 삼차원 입체좌표




좌표 6. 八卦天地人 좌표

좌표 5는 일차원 수직선 세 개를 직각으로 교차시킨 삼차원 입체좌표를 평면화한 것이고, 좌표 6은 陰陽 수직선 세 개를 직각으로 교차시킨 입체좌표를 평면화한 것으로 著者가 八卦天地人 좌표라 이름 붙인 것이다.

좌표 6을 자세히 살펴보면 좌표 4의 四象天地 좌표와 마찬가지로 天축이 上爻를, 地축이 下爻를 결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人축이 세 번째 爻인 中爻를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는 天축이 陰이기 때문에 上爻가 --가 되고 地축이 陽이기 때문에 下爻가 ―가 된다. 그리고 ☲의 영역과 비교할 때 天축에 가까운 영역이라 人축은 陽에 해당하므로 中爻가 ―이 되는 것이다.[74]

73)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1993, p 381

74) 著者 註 : 입체좌표를 평면화하였기 때문에 人축의 陰陽은 구분되어 있지 있다. 地축과 비교할 때 天축이 陽이므로 天축에 가까운 쪽은 陽, 地축에 가까운 쪽은 陰으로 해석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좌표 6을 八卦天地人 좌표라 이름한 것은 이 좌표가 天축과 地축과 人축의 교차에 의해 八卦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 좌표 5와는 달리 각 축이 45°씩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八卦가 四正方 및 四間方에 위치하는 것이 卦象의 성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좌표 5와 좌표 6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좌표 5의 평면화된 삼차원 입체좌표는 모든 세 實數의 조합이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의 8가지 숫자집단으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삼차원 입체좌표는 모든 實數의 세 짝을 여덟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좌표 6의 八卦天地人 좌표는 만물이 여덟 종류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즉 八卦天地人 좌표는 우주 만물을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의 여덟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八卦는 간단히 말해서 8범주 체계, 혹은 삼차원적 範疇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② 八卦와 臟腑를 配屬해야 하는 이유

3차원 입체좌표는 8개의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각각 八卦와 일대일로 대응된다. 이는 각 공간과 각 공간 영역에 포함되는 만물의 성질을 八卦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즉 八卦는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75]와 사물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八卦와 臟腑를 配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人體가 3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인 臟腑 역시 3차원적 도구인 八卦와 配屬하여야만 그 성질과 의미를 정확하게 범주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關한 仮說

(1) 陰陽과 臟腑의 配屬 관계

臟은 陰, 腑는 陽에 配屬하는 것이 臟腑의 陰陽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를 결정할 때는 臟은 陽, 腑는 陰에 配屬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前者를 臟陰腑陽說, 後者를 臟陽腑陰說이라 할 때 어떤 이론을 선택하여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에 응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이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臟腑와 八卦의 配屬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항목에서는 臟陰腑陽說과 臟陽腑陰說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臟陰腑陽說

臟은 陰, 腑는 陽에 配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定說로 인정되어 왔다. 이처럼 확고한 定說로 인정되어온 이유는 『黃帝內經』에 단정적으로 記述되어 있기 때문이다.

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言人身之藏府中陰陽 則藏者爲陰 府者爲陽.[76]

위 『黃帝內經』의 인용문을 보면 "五臟은 陰에 속하고 六府는 陽에 속한다"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결론만 제시하였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문맥상으로 볼 때 內外를 기준으로 臟과 腑의 陰陽을 나누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즉 인체의 外는 陽에 해당하고 內는 陰에 해당

75) 著者 註 :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는 우주를 4차원 우주라고 설명하였고, 최신물리학에서는 極微細 영역에 숨겨진 차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範疇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우리의 우주를 "3차원 공간 + 시간 차원"이라고 보고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7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 2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듯이 臟은 상대적으로 內에 위치하므로 陰에 配屬하고, 腑는 상대적으로 外에 위치하므로 陽에 配屬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치만으로 臟과 腑의 陰陽을 분류했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부학적 위치로 臟과 腑의 內外 관계를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치 이외의 또 다른 요소를 가미하여 臟과 腑의 陰陽을 분류했으리라 추측되는데, 그 요소는 바로 '臟과 腑가 수행하는 각각의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五藏者, 藏精氣而不寫也, 故滿而不能實.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也. 所以然者, 水穀入口則胃實而腸虛, 食下則腸實而胃虛. 故曰 實而不滿, 滿而不實也.[77]

五藏者, 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 六府者,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78]

위 인용문은 臟과 腑의 기능에 관해 『黃帝內經』에 수록된 내용인데, 이에 의하면 臟과 腑의 가장 큰 기능 차이는 저장을 하느냐 消化 · 傳道 · 行津液을 하느냐이다. 즉 臟은 저장, 腑는 消化 · 傳道 · 行津液의 기능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이다.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臟 | 精·神·氣·血·魂·魄의 저장 |
| 腑 | 음식물의 消化·傳道·行津液 |

도표 22. 臟과 腑의 기능 차이

이처럼 臟은 저장하는 작용을 하고, 腑는 음식물을 받아들여 消化·傳道하고 津液을 유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臟은 靜적인 기능 즉 陰的인 기능을, 腑는 動적인 기능 즉 陽的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臟은 陰, 腑는 陽에 配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臟陰腑陽說에 근거한 臟腑와 陰陽의 配屬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br>(陰) | 肝·心·脾·肺·腎 |
| -<br>(陽) | 膽·胃·小腸·大腸·膀胱 |

도표 23. 臟陰腑陽說에 근거한 陰陽과 臟腑의 配屬 관계

② 臟陽腑陰說

臟陽腑陰說은 臟은 陽, 腑는 陰에 配屬하는 이론인데, 그 이론적 근거는 『黃帝內經』이다. 그러나 '藏者爲陰 府者爲陽.'[79]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臟陰腑陽說처럼 '藏者爲陽 府者爲陰.'이라는 구절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黃帝內經』에 수록된 다른 내용을 근거로 臟陽腑陰說을 類推할 수 있다는 뜻이다.

『黃帝內經素問』「宣明五氣篇」에서는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80]라는 구절을 통해 五臟이 五神을 저장함을 설명하고 있다. 五神은 생명을 주재하는 5가지 主體로 五臟을 거처로 하여 五臟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81] 이처럼 五神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五臟은 생명활동의 중추라 할 수 있는데, 臟陽腑陰說은 바로 여기에 착안한 것이다. 즉 五臟은 五神의 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명활동의 主가 되고 나머지 기관은 상대적으로 副가 된다. 따라서 主와 副의 관점에서 臟腑의 陰陽을 분류하면 臟은 陽, 腑는 陰에 해당하는 것이다.

77) 上揭書, p 42
7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213
7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20
80) 上揭書, p 92
81)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著, 東洋醫學大辭典⑦,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20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비유하자면 사령부와 전투부대와의 관계와 같다. 사령부는 안전한 후방에 위치하며 작전을 지휘하고, 전투부대는 전방에서 실제로 전투를 수행한다. 이 때 자리한 위치나 드러난 기능을 보면 마치 사령부가 陰에, 전투부대가 陽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령부는 후방에 위치하며 靜적인 역할을, 전투부대는 전방에 위치하며 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령부의 지휘에 따라 전투부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사령부는 전투부대의 主가 된다. 그러므로 사령부와 전투부대의 근본적인 역할로 따지면 主인 사령부는 陽에, 副인 전투부대는 陰에 해당한다. 이를 臟腑에 적용하면 臟은 사령부에, 腑는 전투부대에 해당하므로 臟은 陽, 腑는 陰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앞에서 살펴본 臟陰腑陽說은 臟과 腑의 드러난 역할 즉 臟의 저장 기능과 腑의 消化 및 傳道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고, 臟陽腑陰說은 臟과 腑의 근원적 역할 즉 主와 副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臟陰腑陽說 | 드러난 역할 | 臟 : 精·神·氣·血·魂·魄의 저장 ⇒ 陰에 配屬 |
| | | 腑 : 음식물의 消化·傳道·行津液 ⇒ 陽에 配屬 |
| 臟陽腑陰說 | 근원적 역할 | 臟 : 主 ⇒ 陽에 配屬 |
| | | 腑 : 副 ⇒ 陰에 配屬 |

도표 24. 臟陰腑陽說과 臟陽腑陰說의 근거

도표 24에 정리된 두 가지 관점 중에서 臟陽腑陰說이 臟腑의 陰陽을 분류하는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主와 副의 관계가 보다 근원적인 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함은 心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心은 예로부터 '君主之官'[82]이라 하여 一身의 主라고 인식되어 왔으니 수동적인 陰이 아니라 능동적 主體인 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생리적 측면에서 볼 때도 잠시도 쉬지 않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臟腑가 바로 心臟이니 陽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약 臟陰腑陽說을 따른다면 心이 陰에 해당하는데 이는 心의 성질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臟陽腑陰說이 臟腑의 陰陽을 분류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臟陽腑陰說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臟陽腑陰說에 근거한 陰陽과 臟腑의 配屬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陰) | 膽·胃·小腸·大腸·膀胱 |
| —(陽) | 肝·心·脾·肺·腎 |

도표 25. 臟陽腑陰說에 근거한 陰陽과 臟腑의 配屬 관계

(2) 四象과 臟腑의 配屬 관계

『黃帝內經』에 수록된 五行과 臟腑의 配屬 관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五行 | 木 | 火 | 土 | 金 | 水 |
|---|---|---|---|---|---|
| 五臟 | 肝 | 心 | 脾 | 肺 | 腎 |
| 五腑 | 膽 | 小腸 | 胃 | 大腸 | 膀胱 |

도표 26. 五行과 臟腑의 配屬 관계

그런데 四象과 五行이 동일한 범주 체계임을 앞에서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도표 26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

8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医學硏究院 出版部, 1985, p 3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四象 | ⚎ 臟腑 | ⚍ 臟腑 | ⚌ 臟腑 | ⚏ 臟腑 |
|---|---|---|---|---|
| 四臟 | 肝 | 心 | 肺 | 腎 |
| 四腑 | 膽 | 小腸 | 大腸 | 膀胱 |

도표 27. 四象과 臟腑의 配屬 관계

도표 27에는 土에 해당하는 脾胃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土가 나머지 네 범주 영역과는 달리 순수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

① 四象에서 八卦로의 分化 과정

臟腑를 八卦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卦象이 四象에서 八卦로 발전하는 과정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 配屬되는 臟腑는 肝·膽이므로 만약 ⚎에 爻가 하나 더해져 ䷀와 ䷁로 발전한다면, 肝과 膽은 각각 ䷀ 아니면 ䷁에 配屬될 것이다. 구체적인 일대일 配屬 관계는 다른 조건을 더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큰 틀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 ䷁로 발전하는 경우는 세 번째 爻가 제일 위에 생긴다고 가정한 경우다. ⚎에 --가 추가되면 ䷀가 되고 ⚋가 추가되면 ䷁가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세 번째 爻가 제일 아래에 생긴다고 가정하면 ⚎은 ䷀와 ䷂로 발전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肝과 膽이 각각 ䷀ 아니면 ䷂에 配屬될 것이다. 그러므로 四象에서 八卦로 분화될 때 세 번째 爻가 어디에 생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爻가 어디에 생기는 것이 옳은가는 좌표 6의 八卦天地人 좌표를 설명할 때 간단히 언급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보자. 四象天地 좌표에서 四象을 이루고 있는 두 爻 중 上爻는 위에 있으므로 天에 해당하고, 初爻는 아래에 있으므로 地에 해당한다. 天과 地가 이미 생성되었으므로 다음에 생기는 것은 人인데, 人은 天과 地의 가운데에 생긴다. 그러므로 四象에서 八卦로 발전할 때 세 번째 爻가 생기는 곳은 가운데이다. 즉 ⚎은 ䷀와 ䷁로 발전한다. 그리고 ⚍은 ䷀와 ䷂로, ⚌은 ䷁와 ䷂로, ⚏은 ䷂와 ䷃로 발전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四象 | 八卦로의 分化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표 28. 四象에서 八卦로의 分化 과정

②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

도표 27과 도표 28에 따르면 ⚎ 臟腑인 肝과 膽은 각각 ䷀ 아니면 ䷁에 配屬될 것이고, ⚍ 臟腑인 心과 小腸은 각각 ䷁ 아니면 ䷀에, ⚌ 臟腑인 肺와 大腸은 각각 ䷀ 아니면 ䷂에, ⚏ 臟腑인 腎과 膀胱은 각각 ䷂ 아니면 ䷁에 配屬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四象 | 臟腑 | 八卦 |
|---|---|---|
| ⚎ | 肝·膽 | ䷀·䷁ |
| ⚍ | 心·小腸 | ䷀·䷁ |
| ⚌ | 肺·大腸 | ䷀·䷂ |
| ⚏ | 腎·膀胱 | ䷁·䷂ |

도표 29. 四象으로 분류한 臟腑와 八卦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표 29는 臟腑와 八卦를 四象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肝·膽을 각각 ⚌·⚍와, 心·小腸을 각각 ⚎·⚌와, 肺·大腸을 각각 ⚍·⚎와, 腎·膀胱을 각각 ⚏·⚏와 1:1로 配屬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四象으로 짝 지워진 臟과 腑 중 어느 것이 陰이고 어느 것이 陽인지를, 그리고 四象으로 짝 지워진 두 卦象 중에서 어느 것이 陰이고 어느 것이 陽인지를 판별하여 陽은 陽끼리 陰은 陰끼리 配屬하면 된다.

먼저 臟과 腑의 陰陽부터 분류해 보자. 臟腑의 陰陽을 분류할 때에는 臟陽腑陰說을 따라야 함을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즉 肝·心·肺·腎의 四臟은 陽에 속하고 膽·小腸·大腸·膀胱의 四腑는 陰에 속한다. 그러므로 ⚌ 臟腑 중 陽은 肝이고 陰은 膽이고, ⚎ 臟腑 중 陽은 心이고 陰은 小腸이고, ⚍ 臟腑 중 陽은 肺고 陰은 大腸이고, ⚏ 臟腑 중 陽은 腎이고, 陰은 膀胱이다. 이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四象 | | 臟腑 |
|---|---|---|
| ⚌ | 陽 ⚌ | 肝 |
| | 陰 ⚌ | 膽 |
| ⚎ | 陽 ⚎ | 心 |
| | 陰 ⚎ | 小腸 |
| ⚍ | 陽 ⚍ | 肺 |
| | 陰 ⚍ | 大腸 |
| ⚏ | 陽 ⚏ | 腎 |
| | 陰 ⚏ | 膀胱 |

도표 30. 四象別 臟腑의 陰陽

이제 四象으로 짝 지워진 두 卦象의 陰陽을 분류해 보자. ䷡와 ䷵는 ⚌에 爻 하나가 추가되어 만들어진 卦象이다. 그 중 ䷡는 ⚌의 上爻와 初爻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고, ䷵는 上爻와 初爻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와 ䷵를 비교하면 당연히 ䷡는 陽에, ䷵는 陰에 해당된다.

䷪와 ䷭는 ⚎에 爻 하나가 추가되어 만들어진 卦象이다. 그 중 ䷪는 ⚎의 上爻와 初爻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고, ䷭는 上爻와 初爻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와 ䷭를 비교하면 당연히 ䷪는 陽에, ䷭는 陰에 해당된다.

䷑와 ䷗는 ⚍에 爻 하나가 추가되어 만들어진 卦象이다. 그 중 ䷑는 ⚍의 上爻와 初爻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고, ䷗는 上爻와 初爻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와 ䷗를 비교하면 당연히 ䷑는 陽에, ䷗은 陰에 해당된다.

䷒와 ䷁는 ⚏에 爻 하나가 추가되어 만들어진 卦象이다. 그 중 ䷒는 ⚏의 上爻와 初爻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고, ䷁는 上爻와 初爻 사이에 --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므로 ䷒와 ䷁를 비교하면 당연히 ䷒는 陽에, ䷁는 陰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四象 | | 八卦 |
|---|---|---|
| ⚌ | 陽 ⚌ | ䷡ |
| | 陰 ⚌ | ䷵ |
| ⚎ | 陽 ⚎ | ䷪ |
| | 陰 ⚎ | ䷭ |
| ⚍ | 陽 ⚍ | ䷑ |
| | 陰 ⚍ | ䷗ |
| ⚏ | 陽 ⚏ | ䷒ |
| | 陰 ⚏ | ䷁ |

도표 31. 四象別 八卦의 陰陽

도표 30과 31을 합치면 다음과 같다.

| 四象 | | 八卦 | 臟腑 |
|---|---|---|---|
| ⚌ | 陽 ⚌ | ䷡ | 肝 |
| | 陰 ⚌ | ䷵ | 膽 |
| ⚎ | 陽 ⚎ | ䷪ | 心 |
| | 陰 ⚎ | ䷭ | 小腸 |
| ⚍ | 陽 ⚍ | ䷑ | 肺 |
| | 陰 ⚍ | ䷗ | 大腸 |
| ⚏ | 陽 ⚏ | ䷒ | 腎 |
| | 陰 ⚏ | ䷁ | 膀胱 |

도표 32. 四象別 八卦와 臟腑의 陰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표 32를 보면 陽 ⚌에 해당하는 것은 肝과 ☳이고, 陰 ⚍에 해당하는 것은 膽과 ☳이다. 陽 ⚌에 해당하는 것은 心과 ☲이고, 陰 ⚍에 해당하는 것은 小腸과 ☲이다. 陽 ⚌에 해당하는 것은 肺와 ☱이고, 陰 ⚍에 해당하는 것은 大腸과 ☱이다. 陽 ⚌에 해당하는 것은 腎과 ☵이고, 陰 ⚍에 해당하는 것은 膀胱과 ☵이다. 그러므로 肝과 ☳, 膽과 ☳, 心과 ☲, 小腸과 ☲, 肺와 ☱, 大腸과 ☱, 腎과 ☵, 膀胱과 ☵이 1:1로 配屬된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八卦 | ☱ (兌) | ☳ (震) | ☰ (乾) | ☲ (離) | ☴ (巽) | ☵ (坎) | ☶ (艮) | ☷ (坤) |
|---|---|---|---|---|---|---|---|---|
| 臟腑 | 肝 | 膽 | 心 | 小腸 | 肺 | 大腸 | 腎 | 膀胱 |

도표 33.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

## III. 結 論

臟腑의 八卦 配屬에 關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西漢의 京房은 八卦와 五行을 配屬하였는데 乾(☰)은 陽金에, 兌(☱)는 陰金에, 離(☲)는 火에, 震(☳)은 陽木에, 巽(☴)은 陰木에, 坎(☵)은 水에, 艮(☶)은 陽土에, 坤(☷)은 陰土에 각각 配屬하였다. 그런데 이는 歸屬物 한 두 가지의 五行 속성을 근거로 해당 卦象의 五行 屬性을 규정하여 八卦와 五行의 配屬 관계를 단정짓는 것으로 「說卦傳 11章」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유래된 그릇된 이론이다.

2. 八卦와 五行의 配屬에 關한 京房學說이 韓醫學에 그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歷代 醫家가 주장한 八卦와 臟腑의 配屬 이론은 ☰(乾) - 金, ☱(兌) - 金, ☲(離) - 火, ☳(震) - 木, ☴(巽) - 木, ☵(坎) - 水, ☶(艮) - 土, ☷(坤) - 土의 配屬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京房學說이 그릇된 이론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諸家學說 또한 誤謬가 있다.

3. 八卦와 臟腑의 配屬에 關한 諸家學說 중에는 京房學說과 다른 관점을 취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옳은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4. 좌표 개념으로 살펴본 결과 陰陽, 四象, 五行, 八卦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陰陽은 1차원적 範疇 체계로,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四象과 五行은 2차원적 範疇 체계로, 2차원 평행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四象의 4범주 체계에 中央土 개념이 추가된 것이 五行 체계다.
③ 八卦는 3차원적 範疇 체계로, 3차원 공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5. 五行은 2차원적 범주 체계고 八卦는 3차원적 범주 체계다. 따라서 3차원인 人體를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八卦 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 가장 먼저 八卦와 臟腑의 配屬 관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臟腑가 人體生理活動의 中樞이기 때문이다.

6. 臟과 腑의 드러난 기능, 즉 臟의 貯藏 기능과 腑의 消化 및 傳道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臟은 陰, 腑는 陽에 配屬하는 臟陰腑陽說이 定說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臟과 腑의 근원적 역할, 즉 主와 副의 관점에서 보면 主인 臟을 陽, 副인 腑를 陰에 配屬하는 臟陽腑陰說이 성립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7. 八卦와 臟腑를 올바르게 配屬하기 위해서는 臟陽腑陰說에 근거하여 臟과 腑의 陰陽을 분류해야 한다. 臟陽腑陰說에 근거해야 八卦와 臟腑의 配屬 결과에 모순이 없으며 또 臟腑의 드러난 기능보다는 主와 副의 관계가 보다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8. 臟陽腑陰說에 근거한 陰陽과 臟腑의 配屬 관계를 살펴보면, 腑인 膽·胃·小腸·大腸·膀胱은 --(陰)에 屬하고, 臟인 肝·心·脾·肺·腎은 —(陽)에 屬한다.

9. 四象과 五行의 配屬關係는 ⚌ - 木, ⚎ - 火, ⚍ - 金, ⚏ - 水이다. 그러므로 四象과 臟腑의 配屬 관계는 ⚌ - 肝 - 膽, ⚎ - 心 - 小腸, ⚍ - 肺 - 大腸, ⚏ - 腎 - 膀胱 이다. 이 配屬 關係에는 脾胃가 빠져 있는데, 脾胃는 中央 土로써 나머지 네 범주 영역과는 달리 순수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10. 四象에서 八卦로 발전할 때 세 번째 爻가 생기는 곳은 가운데이다. 즉 ⚌은 ⚍와 ⚎로, ⚎은 ⚌와 ⚏로, ⚍은 ⚌와 ⚏로, ⚏은 ⚍와 ⚎로 발전한다.

11. 지금까지의 考察 내용을 종합하면 八卦와 臟腑의 配屬 關係는 肝 - ☳, 膽 - ☴, 心 - ☲, 小腸 - ☵, 肺 - ☰, 大腸 - ☱, 腎 - ☶, 膀胱 - ☷ 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3. 金勝東 編著,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4. 主編 蕭元, 副主編 廖名, 周易大辭典, 中國工人出版社, 1991
5. 張敬善 權寧奎 金南一 譯, 李浚用 編, 醫易學思想, 法仁文化社, 2000
6.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1993
7. 金敬琢 譯著, 新完譯 周易, 明文堂, 1985
8. 金碩鎭 講解, 洪易學會 編輯, 大山 周易講解(上經, 下經), 大有學堂, 1993
9. 劉杰, 袁峻 著, 中國八卦醫學, 靑島出版社, 1993
10. 김완희 김광중 著,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도서출판 일중사, 1996
11. 朴贊國 編譯, 臟象學, 成輔社, 1992
12. 裵秉哲 譯, 國譯 黃帝內經, 成輔社, 2000
13. 孫思邈 著, 千金要方, 大星文化社, 1989
14. 張介賓 原著, 類經圖翼(附 :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1988
15. 鄭贊溶 펴냄, 道德經, 國學資料院, 1987
16.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杏林出版, 1991
17. 신기철 신용철 編著,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94
18. 尹暢烈, 臟腑와 八卦配合에 關한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12-2, 19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